

# 교회소식

2020. 5. 3. 145호

1. 주일예배를 당분간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가정예배 지침서를 참고해주세요.
2. “말씀과 함께 하는 하루”와 “합심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3. 코로나19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4. 총기사고 희생자들의 가족들과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주 통계			
주일헌금	CD \$60	1, 2, 12, 25, 26	
감사헌금	CD \$15	1, 2, 26	
십일조	CD \$250	2	
특별, 선교	CD \$10	1	
장년 출석	가정예배	어린이 출석	가정예배

## 가정예배 지침서

1. 예배 시간을 미리 공지해 주시고 온 가족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2. 의복을 잘 갖춰 입고 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동영상 시청은 큰 기기 하나를 준비해서 가급적 온 가족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각 개인이 다른 기기를 가지고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3. 온 가족 구성원이 예배의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 순서를 돌아가며 말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여는 기도와 예배 인도는 아버지, 대표기도는 어머니, 성경봉독은 자녀들이 맡으면 됩니다.
4. 찬양은 동영상을 참고하여 모두가 큰 소리로 함께 부릅니다.
5. 설교는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동영상 시청 중 자리를 이동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6. 합심기도는 5가지의 기도제목 외에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들을 나누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마침기도는 연장자가 하겠습니다.
7.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8. 헌금은 E-transfer로 합니다. ([mahanaim0904@gmail.com](mailto:mahanaim0904@gmail.com)) 패스워드는 (JESUS)로 해주세요.

# 함께 떡을 떼며 서로 발을 씻겨주는 다트머스 한인교회



교회주소: 50 Ritcey Crescent Cole Harbour, NS B2W 6J8

홈페이지: [www.dartmouth-k-church.com](http://www.dartmouth-k-church.com)

예배 안내: 주일예배 2:00PM 본당

어린이교회 2:00PM 지하 청소년교회 1:30PM 지하

담임목사: 김승용 902-746-3566, [mahanaim0904@gmail.com](mailto:mahanaim0904@gmail.com)

# 부활 후 세 번째 주일 가정예배 순서

여는 기도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하나님! 이 땅에 의의 나무로 심으신 각 가정에서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기뻐받아주시옵소서	말은이
찬양	빈들에 마른 풀같이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내 맘이 낙심되어	다함께
대표기도		말은이
<b>이사야 61:1-3</b>		
성경봉독	1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 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 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 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 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2 여호와와 영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 로하되 3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 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은이
설 교	이 땅에 심으신 우리를 통해	김승용목사
교회소식	동영상 참조	김승용목사
결단의 찬양	우리 오늘 눈물로	다함께
합심기도	캐나다와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다함께
주기도문		다함께

# 목회자 칼럼

코로나19에 이어 충격적인 총기사고와 안타까운 헬기사고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다행히 5월이 시작되며 달했던 파크가 개방되었고 일부 야외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직 언급하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캐나다에서도 조금씩 코로나19가 진정되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며칠 전 지난 총기사고의 여파로 트뤼도 총리는 강력한 총기규제정책을 내놨습니다. 입암리에 거래되던 불법총기와 미국으로부터 밀수된 총기들이 얼마나 수거되느냐가 이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관건일 것입니다. 사실 캐나다는 그동안 총기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갱들 간의 보복전쟁의 일환이었습니다. 즉 타켓이 정해진 범죄여서 일상의 주민들에게 총기사고가 사실 좀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이것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큰 대도시 중심으로 갱들의 마약거래에 고등학생, 심지어 중학생들이 포섭되어 그들에게 불법총기를 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마약과 불법약물, 그리고 총기 등이 일상 속으로 끊임없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BC주에서만 하루에 2.5명이 불법약물로 사망했습니다. 캐나다 전체로는 10명입니다. 이 통계엔 원주민들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묻지마 총기사고와 인종혐오범죄까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가 내놓는 강력한 규제만큼이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기입니다. 할리팩스라는 작은 중소도시에서 이처럼 끔찍한 총기범죄가 일어난 것은 어찌 보면 우연한 해프닝이나, 한 사람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묵인하고 방관하는 사이에 악이 얼마나 이 캐나다 천역에 깊이 퍼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이 모습일 것입니다. 늦었지만 강력한 총기규제정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규제로는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를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나무가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떨기나무, 요나의 방덩쿨 나무, 시편의 시냇가의 심은 나무, 요한복음의 포도나무 등등... 참 많은 부분에서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 중 이사야서의 등장하는 “의의 나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해 보여주는 단초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를 심으십니다.

나무는 스스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심겨진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나무가 옮겨지는 것은 유일합니다. 누군가가 옮겨줄 때뿐입니다. 즉 나무가 자랄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국 한국에서 우리를 떠서 이곳으로 옮겨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으심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게 된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살아가는 방법은 뿌리는 깊게 내려 물의 근원을 찾는 것입니다. 나무의 생명력은 깊게 뿌린 내린 그 뿌리에 있습니다. 나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의 샘물을 통해 가뭄 속에서도 푸름을 유지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양식을 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그곳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살 때 광야에서도 푸른 잎을 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는 결코 나무 한 그루만의 생명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무에는 수많은 새들과 앉아 뜨거운 광야의 햇살을 피해 시원한 그늘 아래에 쉬고 열매를 먹고 생명을 이어나갑니다. 한 나무는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의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지친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나눠주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 재력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열매만을 맺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에 비로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의에 나무로 이 땅에 심겨질 때 이 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다트머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승용